

건국대학교 부속병원 견학기 A Visit to Konkuk University Hospital

최 광 석*
Choi Kwang-Seok



2007년 10월 27일(토) 학회의 정기행사인 병원견학회로서 건국대학교 부속병원을 방문하였으며, 회원 31명이 참가하여 병원에서 준비한 홍보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설계 주관사인 범건축의 원형준 소장과 함께 병원을 견학하였다.

건국대학교 부속병원은 병상수 856병상으로 대지면적이 협소하여 동급 병원에 비해 연면적 대비 건축면적이 협소하고 건폐율도 36%로 높아 배치계획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원 후 2년이 경과된 지금, 병상 이용율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일일 외래환자수는 병상수 대비 2.5 배 수준으로 병원의 기능이 아직 완전히 활성화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주변지역이 인구가 과밀한 지역이고 큰 병원이 없어 향후, 병원의 운영여하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매우 큰 입지조건을 가졌다고 본다.

견학은 병원의 운영이 이미 정상화 된지 오래되어 수술실, 중환자실 등 주요 공간은 볼 수 없었고, 주로 로비와 외래부 분, 방사선부 등을 중심으로 돌아보았다.

■ 시설개요

- 위 치 :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
- 대지면적 : 17,171㎡
- 연 면 적 : 83,101.84㎡
- 건축면적 : 6246.71㎡
- 건 폐 율 : 36.38%
- 병 상 수 : 856 Beds
- 층 수 : 지상 12층, 지하 4층
- 구 조 : R.C조
- 준공년도 : 2005년 7월

* 이사, 정회원, 대불대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그림1. 감사패 증정(범건축 원형준 소장)



그림2. 옥상정원에서

차량 진입로는 2호선 고가 지하철로가 지나가는 상부측 대로와 좌측 주도로에서 동시 진입이 고려되어 있는데, 협소한 대지에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층부를 대지의 장방형으로 배치하고, 병동매스는 좌측 주도로에 맞도록 정면성을 주고 하부 3개층을 피로티로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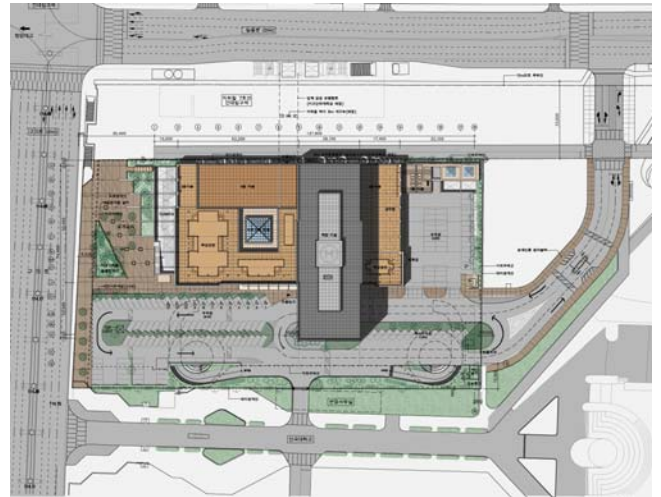


그림3. 배치도

1. 진입 및 배치

장방형 부지의 상부측(서측) 대지 지하는 지하철 7호선으로 지하철 출입구와 병원이 직접 연결된다(그림 3). 이전의 병원처럼 병원영역이 외부와 명확히 구분된다기보다는 병원이 지역사회와 더욱 밀착하려는 경향을 보여주며 이것은 특히 도심지 병원에서 매우 효과적이다. 반면 병원의 주출입구는 대지의 동측에 위치하여 지하철 역과 반대편에 위치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병원내부에 지하철역과 병원의 주출입구를 이어 주는 폭이 넓은 연결 통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두 지점의 층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지하철 연결구 사이에 에스컬레이터가 부착된 커다란 정방형의 아트리움을 설치하였다(그림 7, 8). 이 아트리움은 지하층으로부터 지상 2층까지를 수직적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충분한 자연채광이 연결 통로 및 지하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지하 주차장은 지하철역과 병원의 원활한 연결을 방해하지 않고, 주출입구에서 지하주차장으로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부지 동측지하에 배치하였다.



그림4.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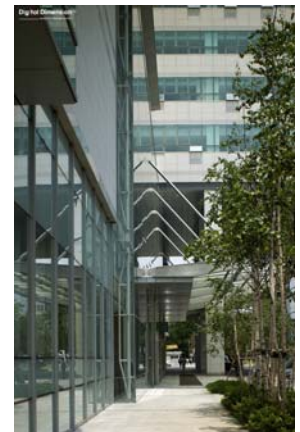


그림5. 주출입구 진입로

2. 단면 및 평면구성

평면/단면 구성의 특징은 기존의 동급병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저층부의 호스피탈 스트리트 디자인이 아닌 아트리움을 채택한 점이다. 대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리트 디자인을 사용하기 어려웠 것으로 생각하며, 병원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병원을 만들려는 노력과도 일맥상통하는 디자인이다.



그림6. 단면구성



그림7. 아트리움

그림8. 아트리움



그림9. 1층 평면도 (외래)



그림10. 과별 독립형 외래진료부



그림11. 3층 평면도 (수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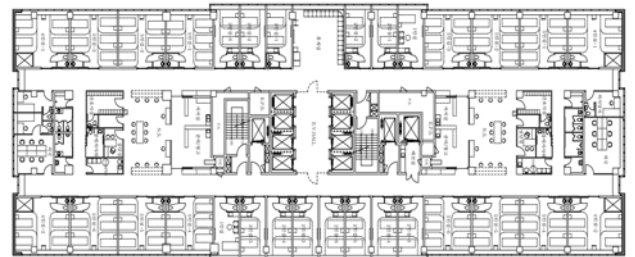


그림12. 기준층 평면도

외래진료부는 아트리움 주위에 주로 과별 독립형 외래가 배치되어 있다. 독립형 외래는 몇 개과가 특정 질병을 대상으로 협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는 센터형 외래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각 외래에는 해당 과 내부에 환자대기공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아트리움 쪽의 복도에는 한산함마저 보인다. 문득 80년대 구식 병원에서 환자로 넘쳐 북적이던 그 외래의 모습을 생각했다.

작업효형의 수술부 평면과 이중복도형의 병동플랜은 공간의 절약과 업무효율성을 중시하는 디자인이다. 수술부는 중앙수술과 외래수술이 같은 구역에 계획되어 있으며, 수술실 수는 총 15실이다. 병동은 1간호단위당 51병상이고, 병실은 주로 화장실이 부속된 5인실이다.

3. 맺는말

병원건축의 계획과 설계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생각한다. 과거는 다른 병원보다 더 크고 더 좋게 보이기만 하면, 통하던 시대였지만, 이제는 따질 것도 많고 무엇보다 경제적이면서도 좋은 건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전술한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켜 나갈지 그것이 문제이다. 건축가와 설계사무소, 건설업체는 나름대로의 전략이 필요하고 이 분야에서 취약한 연구기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